청련사, 어르신 마음 녹이는 연탄·김치 선물

12월 2일, 소외계층 자비나눔
100가구에 김치 등 생활용품
17가구에 연탄 총 1만장 배달
상진 스님 "따뜻한 겨울 되길"

김내영·김가령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나태인 장흥면장 등이 연탄을 손수 옮기고 있다.

태고종 천년고찰 양주 청련사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따뜻한 나눔의 자리를 마련했다.

청련사는 12월 2일 양주 장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겨울나기 자비의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청련사 회주)과 나태인 장흥면장, 청련사 대중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했다.

청련사가 이날 장흥면에 전달한 물품은 김장김치 12kg씩 100박스와 라면 100박스, 화장지 300롤, 고무장갑 500켤레, 연탄 1만장이다. 김치와 라면, 화장지, 고무장갑은 지역 내 저소득층 100가구에, 연탄은 580여 장씩 17가구에 전달됐다.

물품은 청련사 대중스님들의 모임인 참나나눔회, 청련사 포교원, 청련사 관음회, 심향합창단, 청련사 매점, 장흥면사무소, 장흥면 새마을부녀회가 후원했다. 특히 이날 전달된 김장김치는 전날 청련사 대중스님들과 신도회, 불자들이 직접 담그고 포장한 것이어서 자비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



태고종은 종로구청에도 김치1000kg과 이불 100채를 전달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올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한다. 장흥면에는 특히 독거어르신이 많이 계시는데 청련사가 준비한 김장김치와 연탄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육바라밀뿐"이라고 강조한 상진 스님은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희망을 갖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청련사가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나태인 장흥면장은 "올해 1월 면장으로 부임하면서 청련사가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청련사 덕분에 포근하게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하다. 발전하는 청련사 되길 기원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달식에 이어 참석대중은 인근 장흥면 일영리에 위치한 취약가구를 찾아 연탄을 손수 날라 훈훈함을 더했다.

청련사는 매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자비나눔 성금지원을 이어오다 2017년부터는 생필용품, 선풍기, 김장김치, 연탄 나눔으로 확대했다. 노인잔치, 무료급식, 장학사업, 군부대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활동도 앞장서고 있다. 연간 나눔 비용만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청련사는 향후 예산을 확대, 더욱 적극적인 나눔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진 스님은 같은 날 오후 종로구청을 방문,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리동네 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김치 10kg, 100상자와 이불 100채를 전달했다. 물품은 태고종 복지재단과 태고종 서울강북 교구 종무원에서 후원했다.

동국대本 '불교학 개론' 발간 추진된다

돈관 스님 증명으로 편찬위 구성
2025년 상반기 개론서 발간 예정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가 시대에 맞는 '불교학 개론' 발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의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높이겠다는 게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복안이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2월 4일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8차 건학기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학기본기관장들은 5대 공통의제에 대한 기관별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동국대 출판문화원장)은 내년 5월 초 발간 예정인 〈불교사전〉 편찬 사업 진행 상황을 발표와 함께 새롭게 편찬이 추진되는 〈불교학 개론〉 발간 사업에 대해서 소개했다.

박기련 사무총장은 "불교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대에 맞는 불교학 개론서가 없다. 기존 개론서는 40년 전에 발간돼 보완이 필요하다"며 "건학위에서는 이사장 돈관 스님들을 증명으로 모시고 '불교학 개론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편찬을 추진하며, 1차 회의를 가졌다.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불교학 개론〉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편찬위원회에는 황순일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장,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 유진 스님, 박기련 사무총장이 공동편찬위원장으로 참여하며, 불교대학·불교문화대학 전임교원이 편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동집행위원으로는 각 단과대학 추천인과 법인 추천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방학기간 이뤄지는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활동 계획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에서는 단과대학 불교동아리들이 38개 방학 신행프로그램을, WISE캠퍼스에서는 16개의 방학 신행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도 해외불교 순례부터 템플스테이 체험, 봉사활동 등 다양하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올해 서울캠퍼스, WISE캠퍼스를 비롯해 법인 산하학교에서 6500명이 수계를 받았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불자로 정착시키고 전법 원력을 이어갈지가 중요하다"면서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기관별로 수계법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복지 발전 위한 자비행 실천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복지유공자 32명에게 표창 수여
취임 800일 진우 스님 기금 쾌척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12월 5일 '제26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표창받은 복지유공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년 한 해 복지현장에서 불교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진우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12월 5일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6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는 한 해 동안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물심양면 도운 사회복지 일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불교사회복지 발전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복지재단 이사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교는 사회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를 첫 번째 원을 세워 모든 중생이 행복하길 발원했다"면서 "마음의 평화가 곧 사회복지이며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2025년에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과 함께 국민의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취임 800일을 맞은 진우 스님은 복지재단 발전기금 8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부처님 자비 실천 가르침 실현을 위해 복지 현장에서 노력한 분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위로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재단은 불교사회복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에 맞는 전문 사업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비나눔 유공자 총무원장 표창은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 불교사회복지 발전공헌, 자원봉사 후원활동 등 세 부문에 나뉘어 시상됐다.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에는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대표이사 연규 스님) 등 4곳이 수상했다. 이어 김경애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사회복지 전문가 3명이 불교사회복지 발전공헌상을 받았다. 또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단체 '군자동자원봉사캠프'를 비롯해 복지활동가 2곳이 표창을 받았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세 부문에 걸쳐 △김용학 공주시니어클럽 관장과 △김영광 연화보호작업장 선임 직업훈련교사 △고명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등 기관과 봉사자 11곳에 시상했다. 김가령 기자

日대사에 강제징용자 유해 송환 협조 당부

12월 4일, 미즈시마 대사 예방
2025년 수교 60년 교류 약속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2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해가 한국으로 봉환하는 데 협조를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미즈시마 코이치 대사와 환담하며 "한국과 일본 불교계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와 한중일 불교우호대회 등을 함께하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양국 간 얽혀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불교계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일제 강점기때 일본에서 노동을 하다 희생된 이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논의를 일본 불교단체와 진행 중이며, 현지 불교계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사관을 통해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는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여러 과제가 있지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이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한 한국불교문화 체험 주간을 언급하자 미즈시마 코이치 대사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불교 문화로 민간교류에 힘써줘 감사하다"면서 "2025년 한일수교 60주년을 앞둔 만큼 대사관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 가까이 마주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 일 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280~330만원

천불천탑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완벽 순례 5박 6일
■ 일 정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양곤–인천

미얀마 바간


대만 4박 5일
■ 일 정 불광사–중대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천혜의 자연과 찬란한 문화유산,
베트남+캄보디아 4박 6일


순수의 나라,
라오스 4박 6일


불교의 나라,
태국 3박 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